

추억은 계속 된다

전 선 애 / 방송작가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가슴 떨리는 추억이다. 강원도 깊은 산골, 공부를 좀 잘한다는 것 말고는 무엇하나 내세울만한 재주도, 눈에 떨만큼의 외모나 녀살도 가지지 못한 평범한 시골아이였던 나의 첫 가슴앓이 대상은 누구에게나 그랬던 것처럼 중학교 1학년 사회선생님이었다. 시골 중학교에 첫 부임한, 생전 햇빛 한번 본적 없는 듯 하얀 피부에 멀쩡하게 큰 키, 까만 안경테.. 여자친구 이야기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들려주던 그. 그저 딱딱한 학교 생활에 익숙했던 우리에게 선생님은 당시 만해도 파격적인 수업과 시험방법으로 우리를 놀랍게 또 가슴설레게 했었다. 감히 선생님 근처에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공부잘하는 반장인 나를 그저 알아봐 주기만을, 기다렸던 나는 성적으로 나의 존재를 보여주겠다던 계획을 포기해야했다

특히 시험방법이 압권이었었는데, 생전 처음 우리는 정답이 없는 주관식 질문을 처음 경험하게된 것이다. 더구나 시험결과를 가지고 방학중 전국 답사를 함께 할 아이들을 선발하겠다고 했다. 시험도 시험이지만,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답사여행!

그것은 참으로 가슴설레는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어리숙하고, 모범적이기만한 나는 정답을 쓰느라 애는 썼지만, 결국 답사행렬에 끼지 못했다. 성적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선생님은 모범생 대신 기발하고 엉뚱한 아이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유난히 길고 지루했던 방학이 끝나고, 답사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의 즐거운 무용담을 질투 반 부러움 반으로 먼 발치에서 귀기울이던 나는 친구들 사이에 앉아있던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순간, 나의 이름을 부르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나의 이름을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선생님은 말했다 “글을 잘 쓴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소릴까... 얼굴은 빨개지고, 가슴은 실새없이 쿵쿵 거렸다.

그뒤에 무슨말인가를 하셨는데, 전혀 기억나질 않는다. 다만 잊혀지지 않는 그말..

특별한 재주도, 별다른 관심사도 없었던 나는 초등학교때부터 특별활동은 그저 책이나 읽고 시간을 때우는 문예반에 있었다. 가끔 반공이니 절약이니 하는 주제로

가끔은 생각한다. 언젠가, 그게 현실이었던지 꿈이었던지조차 헛갈릴만큼 오래전 그때,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덕에 지금의 내가 있는건 아닐까..

글을 써 상을 받기도 했지만, 그건 누구나 한번쯤 받아봤음직한 것이었지 내세울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때도, 또 그 후로도, 나는 이렇다할 글솜씨를 자랑하는 문학소녀는 아니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분명 나를 글 잘쓰는 아이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후 다시 답사여행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나는 전학을 갔고, 시골을 벗어나 도시로 나오면서 일찌감치 글쓰기로 미래를 저당잡힌, 글쟁이의 숙명을 타고난듯한 재주 많은 친구들을 만났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잊혀져 가는 것 만큼 글을 쓰는 것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갔다

다시, 내가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을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참이 지난후였다

그렇게 20년이 흐른 지금, 나는 방송작가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 늘 시간에 기어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허둥대면서, 작가가 아니라 잡가라며 자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글을 써 돈을 버는 일로 8년째 살고 있다.

영상이 활자를 압도하는 시대, 핑크빛 환상이 겹쳐 칠해진 방송가에는 요즘 작가를

하겠다며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들은 가끔 왜 작가가 되었느냐고 묻곤한다. 그냥 직업일 뿐이라고 말하는 나의 심드렁한 목소리에 대부분은 실망하거나 농담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것은 나의 솔직한 대답이다. 작가라는 이름에 의미를 두기에 글쟁이로서의 자질도, 평생 업으로 삼겠다는 용기도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한다. 언젠가, 그게 현실이었던지 꿈이었던지조차 헛갈릴만큼 오래전 그때,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덕에 지금의 내가 있는건 아닐까..

그리고, 먼훗날, 하루에도 몇번씩 포기하고 싶은 지긋지긋한 자판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후, 20년전 그때처럼 선생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CPK**